

유선전화 A/S작업 중 지붕에서 떨어짐

재해개요

2018년 5월 14일(월) 14:00경 재해자가 서울시 **동 일대에서 유선전화 A/S수리 요청을 받고, 옥상에 있는 통신선로(전화단자) 확인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을 밟고 이동(추정)하던 중 슬레이트 지붕재가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어 바닥(높이: 약 5m)으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함.

재해발생 상황도



* 추정상황도로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음

재해발생 원인

○ 슬레이트 파손에 의한 떨어짐

- 지붕에 설치된 슬레이트는 강도가 약해 파손의 위험이 항상 있음에도 작업자가 지붕 위로 이동하다(추정) 슬레이트가 부서지면서 바닥(높이: 약 5m)으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.

○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위험성 인지 부족

- 슬레이트를 밟고 이동하면 부서지면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작업자가 인지하지 못해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동 중 사고 발생.

예방대책

○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작업 진행

- 전화선 수리와 같이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고압전선 등 주변 환경과 안전한 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함. 부득이 슬레이트 지붕에서 작업(이동)해야 하는 경우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의 안전조치 선행 후 작업 실시.

○ 작업의 위험성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 실시

- 전화선 수리와 같이 옥상 등에서 진행되어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위험성 파악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, 작업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고 이해시킨 후 작업 진행.